

訓 示

오늘 위로는 十方諸佛께서 證明하시고 전국의 大德스님과 三師七證의 여러 스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종단 제32회 單一戒壇 具足戒授戒山林 告佛式을 봉행하게 됨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지금 壇下에는 수계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모든 애탐을 끊고, 세속을 뒤돌아 봄 없이 진리를 향한 오롯한 마음으로, 弘誓大願을 세우고 위법망구로서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삼가 청하옵나니, 十方三寶와 三師七證께서는 오늘 이 엄숙한 자리에서 淸淨比丘, 比丘尼로 태어나기 위하여 운집한 수계제자들을 哀愍攝受하사 淸淨戒를 說하시어 이들로 하여금 人天의 師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受戒弟子 여러분! 佛法을 만나 修行者가 된 것은 盲龜遇木의 因緣보다 至重한 것이요, 王侯將相이 되는 것보다 큰 福德입니다. 여러분 모두 具足戒를 受持하는 最上の 福德을 가졌으니 善根功德의 因緣입니다.

이제 受戒弟子 여러 스님들이 波羅提木叉를 받아 지니고자 합니다. 이 문 안에 들어서면 모름지기 戒로써 스승을 삼고, 生命을 버릴지라도 범하지 않는 不退轉의 결의로써 굳게 禁戒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청정범행은 僧伽의 生命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佛菩薩님의 진리 속에서 근본적인 生死문제를 풀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에 직면하였습니다. 고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은 삶의 바른 길을 提示해줄 스승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수계제자 여러 스님들은 앞으로 모든 人類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받는 중생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과 부처님의 咐囑을 遂行해야 할 막중한 責務를 지게 되었습니다. 계로 말미암아 선정이 생겨나고, 선정으로 인하여 지혜가 發現하며, 지혜바라밀이 성취되어야 성불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또한 戒는 “清涼한 연못처럼 갖가지 善華를 만들고,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惡草를 태운다.”하였습니다. 戒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位相을 正義롭게 하고 스스로 淨行의 몸가짐으로 오로지 戒를 生命으로 하여, 煩惱와 無明의 障礙를 끊는 수행정진을 하되 如救頭燃의 각고정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56년 3월 27일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慈 乘